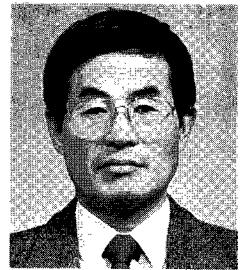


국내 가금융종의 필요성과 방향



유 병 현
마니육종 사장

국내에서 가금융종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지난 30여 년간 누차 언급되어 왔지만, 양계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축산물 수입의 자유화 경향에 비추어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종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우선 가금융종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업계 및 관계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금융종의 성공가능성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실적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다르게 평가되리라고 생각한다. 1973년 해외 종계수입이 금지된 후, 1970년대 중반에는 국내에 3개 민간기업에서 가금융종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76년에 종계수입이 다시 허용된 후에는 천호부화장이 유일한 육종회사로 남아서 산란계 및 육용계의 개량사업을 지속하다가 1981년 전문적인 육종회사인 마니육종을 설립하였다. 그 후 마니육종은 고유의 품종인 마니나 산란계와 마니

커 육용계를 개발하여 시판해 왔으며 지금은 국내 산란계시장의 12~15%, 육용계시장의 30~40%를 점유하게 되었다. 만일 지속적인 시장점유율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한다면, 마니육종의 지난 16년간의 업적은 성공의 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업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를 더 장기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은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이르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가금융종이 필요

한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해외의 가금육종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한국농어민신문 1993. 5.31),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상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양계업계가 오늘날까지 경험해온 바와 같이 EDS-76와 감보로병과 같이 새로운 질병이 수입한 종계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종계 및 종란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종계의 수가 1992년도처럼 백만수 단위가 되면, 그 많은 개체를 계류하여 검사하고 방역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계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양계산업을 해외의 새로운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라도 새로운 변이형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반면에, 국내에 육종회사가 있는 미국, 독일, 영국, 불란서, 네델란드, 덴마크,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종계수입을 제한하거나 그 수를 최소로 줄여서 자



국의 양계산업을 이와같은 방역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금육종은 자국의 양계산업을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종계·부화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종계를 수입할 때는 종계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종계에서 생산되는 실용계의 사양관리 기술, 방역위생 프로그램,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 기술을 함께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는 곧 가금육종에 성공하여 종계를 수출하면, 유전·육종학 분

야 뿐 아니라 영양, 생리, 수의, 관리 등 양계학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종계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종계 뿐 아니라 양계연구·개발도 해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양계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금육종을 함으로써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육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지역의 환경적인 특수성이 강할수록, 이상적이거나 보편성이 있는 환경에서 개량된 품종보다 그 지역에서 개량된 품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한국 사육환경의 특수성으로는 여름과 겨울의 극단적인 기후의 차이를 들 수 있으

며, 지금도 계사가 개선되어가고는 있지만, 더위와 추위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필요하다. 또한 고밀도사육에 잘 견디고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품종이라야 생존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나 전반적인 생존력은 인위적인 선발형질로써 개량되기 보다는 자연도태 과정에서 개선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개량된 계통에서 이 자연도태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사육환경 때문에 자연도태가 되는 정도만큼 인위적인 선발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인 특수성은 사육환경 뿐 아니라 지역시장, 즉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패턴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도체중량을 맞추기 위한 출하체중은 1.5~1.7kg으로써 구미의 2.0~2.2kg과 다르며, 이는 우리나라의 닭고기 조리방법과 소비패턴이 특징적으로 구미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출하체중에 차이가 있을 때 생체중 kg당 초생추 비용은 상대

적으로 구미에서보다 한국에서 약 1.3배가 되므로 종계의 생산성이 그만큼 중요시 되는 것이다. 닭고기 부위별 기호성도 달라서, 한국에서는 복채나 날개와 같은 적색육을 선호하나 구미에서는 가슴살이 훨씬 고가의 부위인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의 소비자는 닭고기의 육질과 풍미를 중요시하는 경향도 구미와 다른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하겠다. 산란계의 경우도 소비자가 특란을 선호하기 때문에 평균난중이 높아야 하고, 같은 난중이라도 난형계수(난폭:난장의비)가 높아서 둥글게 보이는 달걀을 원하는 것은 한국 식란유통시스템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소비측면에서 볼 때, 수입된 품종보다는 국내에서 자국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개량한 품종이 소비자의 요구에 더 접근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 종계를 생산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외화는 500만불 내외이므로(한국축산연감 1992) 오늘날 한국의 국제경제 규모로 보아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종계

수입은 매년 반복되어야 하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계뿐 아니라 양계기술도 해외에 의존해야 되므로 양계산업이 자립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종계를 수출하는 입장이 된다면 종계수출은 양계시설, 기구, 사료, 기술 등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며, 한국 농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국내에서 가금육종을 하여 대량의 초생추나 종란을 수입함으로써 야기되는 방역상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금육종에 수반되는 양계기술의 개발로 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환경에 적응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종의 보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종계수출을 계기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의 가금육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가? 닭의 육종방향은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보다는 5~10년 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와같은 예측 뿐 아니라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에서조차도 종계의 “국제경쟁”에서 존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금육종의 방향설정은 결국 양계산업의 구조와 양계산물의 소비패턴 및 선호가 5~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며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양계업체처럼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축산물의 수입이 점차 개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고 지극히 불확실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패턴으로 보아 앞으로 육계의 수요가 2분화 될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통닭으로 전통적인 조리 및 가공에 이용되는 생체중 1.0~1.7kg의 “세미브로”와 부분육, 발골육 및 가공품으로 이용될 생체중 1.8~2.5kg의 “하이브로”가 공존하는 시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하이브로는 닭고기 가공품이 개발되고 일반 식생활에서 편의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수요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수요는 구미에서의 수요와 그 성격이 비슷하므로 이 수요에 응하기 위한 육종 방향은 현재 구미에서 수입되

고 있는 종계에서와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닭고기 수입이 점차 개방될 때 우선적으로 이 하이브로 수요의 일부가 수입된 닭고기에 의하여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반면에 세미브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필요한 품종, 즉 종계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고 실용계의 초기 성장능력이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품종은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닭의 부위는 복채와 날개로서, 이는 닭고기의 품미와 육질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므로, 이 선호부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미에서처럼 가슴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복채의 비율이 높은 방향으로 육종을 진행시키는 것이 소비자의 요구에 더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바, 육종방향의 초점이 되는 소비자는 종계의 수요자, 즉 종계·부화장 또는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의 수요자인 브로일러 사육농가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계나 실용계의 생산성

은 닭고기의 소비자 가격을 결정해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닭고기의 풍미와 육질과 같은 형질은 종계·부화장이나 브로일러 사육농가 보다는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형질이기 때문에 육종의 방향이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와같은 ‘소비자 형질’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계·부화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에서는 종계의 생산성이 중요시되었고, 이제 육계산업의 계열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계약사육농가의 수익에 직결되는 실용계의 생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머지않아 계열화가 정착되고 브랜드에 의하여 품질위주로 닭고기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풍미, 육질, 위생 등 소비자가 관심있는 닭고기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육종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특히, 닭고기의 수요가 양분화되고, 수입된 냉동 닭고기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서 냉장·신선·고품질의 국내산 닭고기를 품질면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생기므로, 국내에서

는 닭고기 품질에 대한 육종의 배려가 더 절실한 것이다.

점차 계사의 시설이 개선되고 사육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용이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극단적인 기후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산 닭고기를 품질면에서 차별화 할 필요가 발생함 으로 계육품질에 대한 육종의 배려가 더 절시하고 중요 하다고 본다.”

근래에는 시설의 자동화와 사육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닭의 사육밀도가 높아지므로, 이와같은 사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항병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중요한 형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형질이 한층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국민의 환경과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제 등 사료첨가물의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므로 결국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항병력이 높은 품종을 가지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양계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금육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공가능성이나 사업의 장래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듣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지금까지 수입된 종계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해온 마니육종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사고이다.

이제는 이와같은 회의나 부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산종계를 한국의 사육실정에 맞고,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더욱 개량하여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종계, 수입닭고기와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계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계수출의 길도 본격적으로 닦아야 할 것이다. 